

AI시대의 역사연구와 '디지털문헌학'

— 도구와 질문은 어떻게 만나는가

허 수 (서울대학교)

도구 ? 질문

어느 쪽을 택해도 무언가를 잃습니다



《개벽》 1920~1926 · 72호 · 수작업 → 알고리즘 → AI

1기 (2005~2013)

도구 = 엑셀

통찰 = 최대

?

"섬약(纖弱)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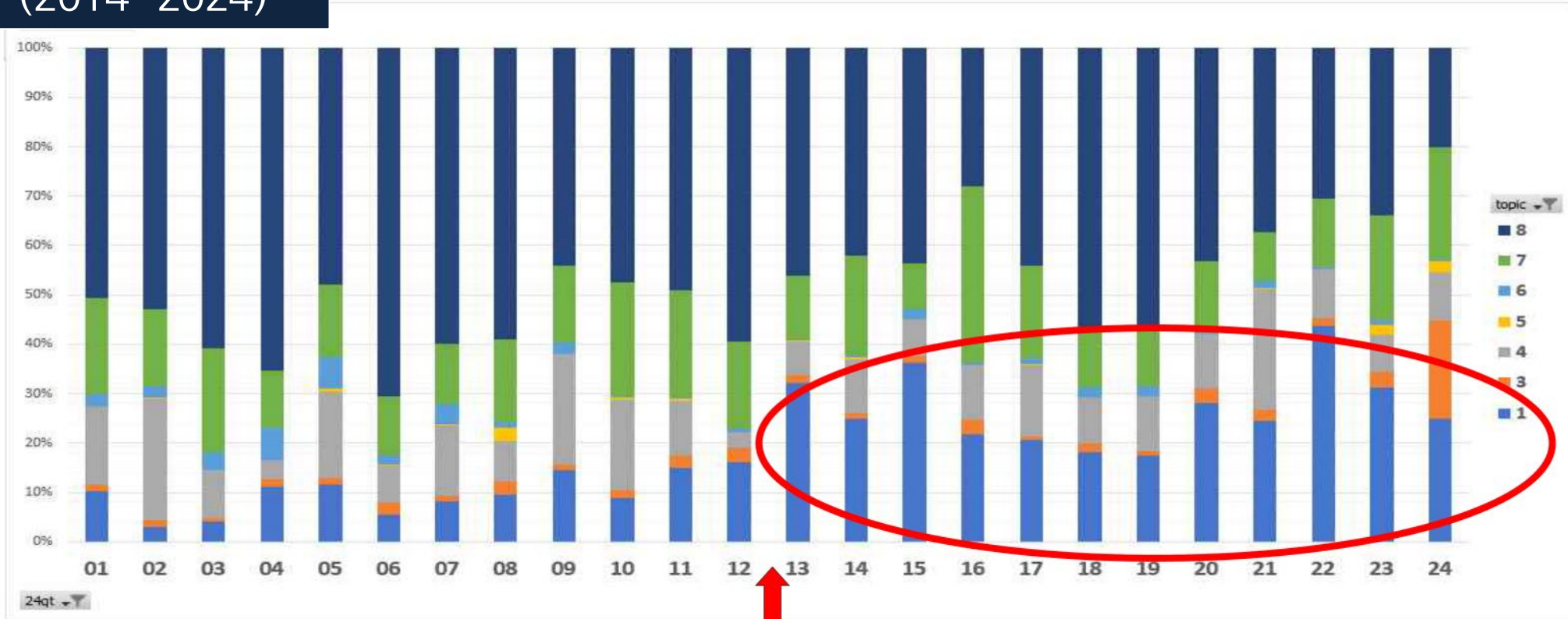
"강질(強質)"

김기전 — '사상의 큐레이터'

"점차 변했다"

— 그게 전부였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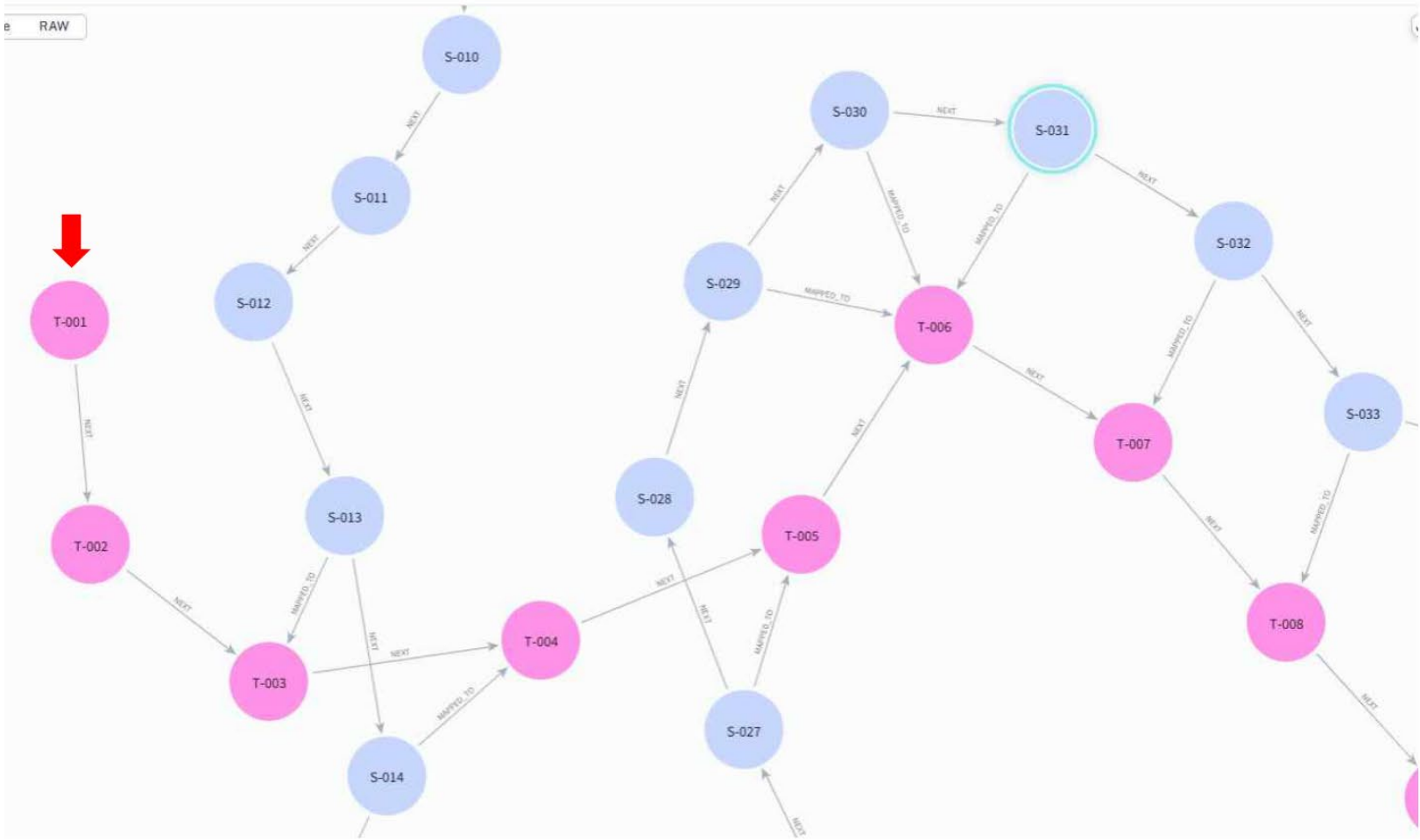
2기 (2014~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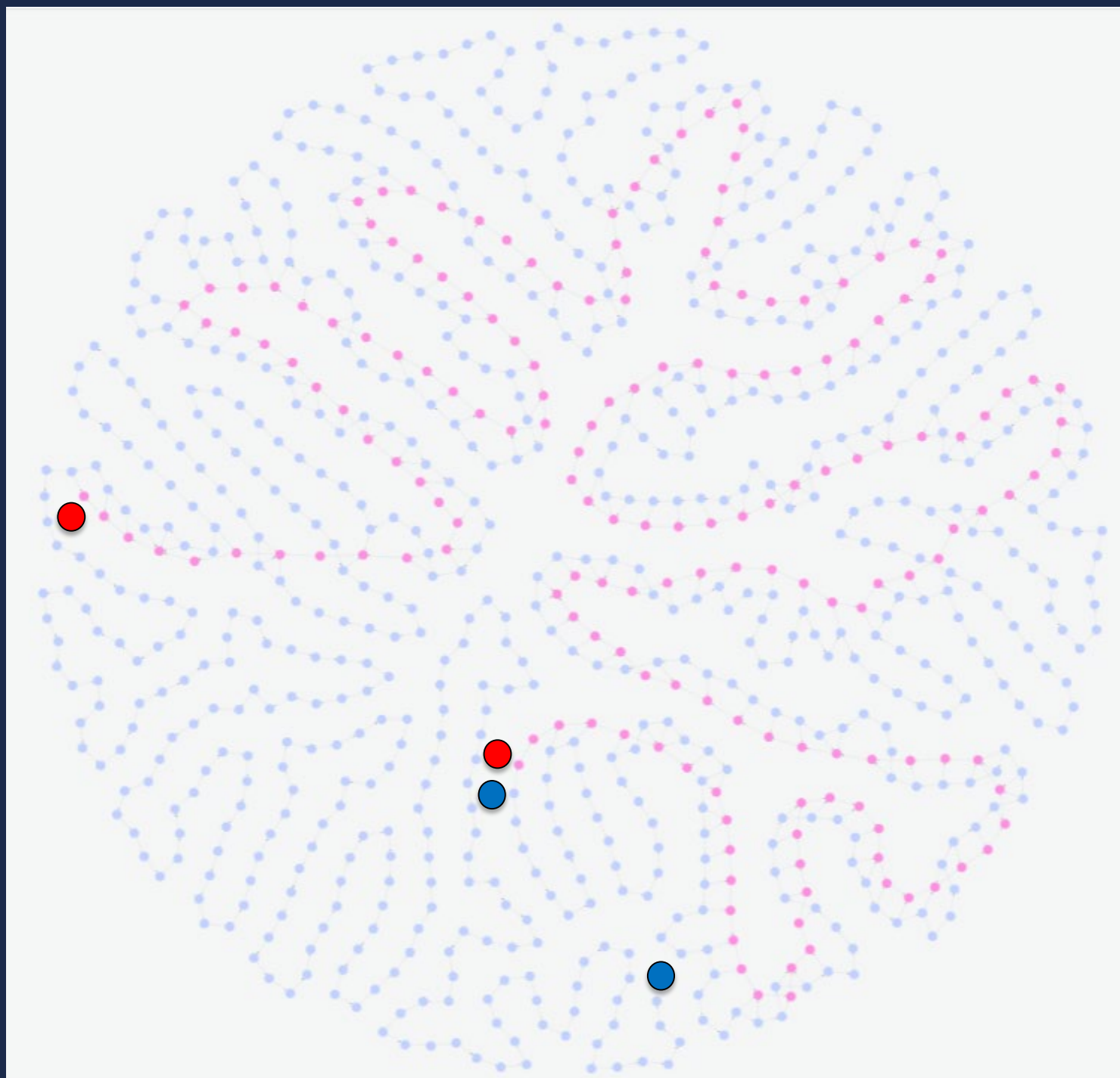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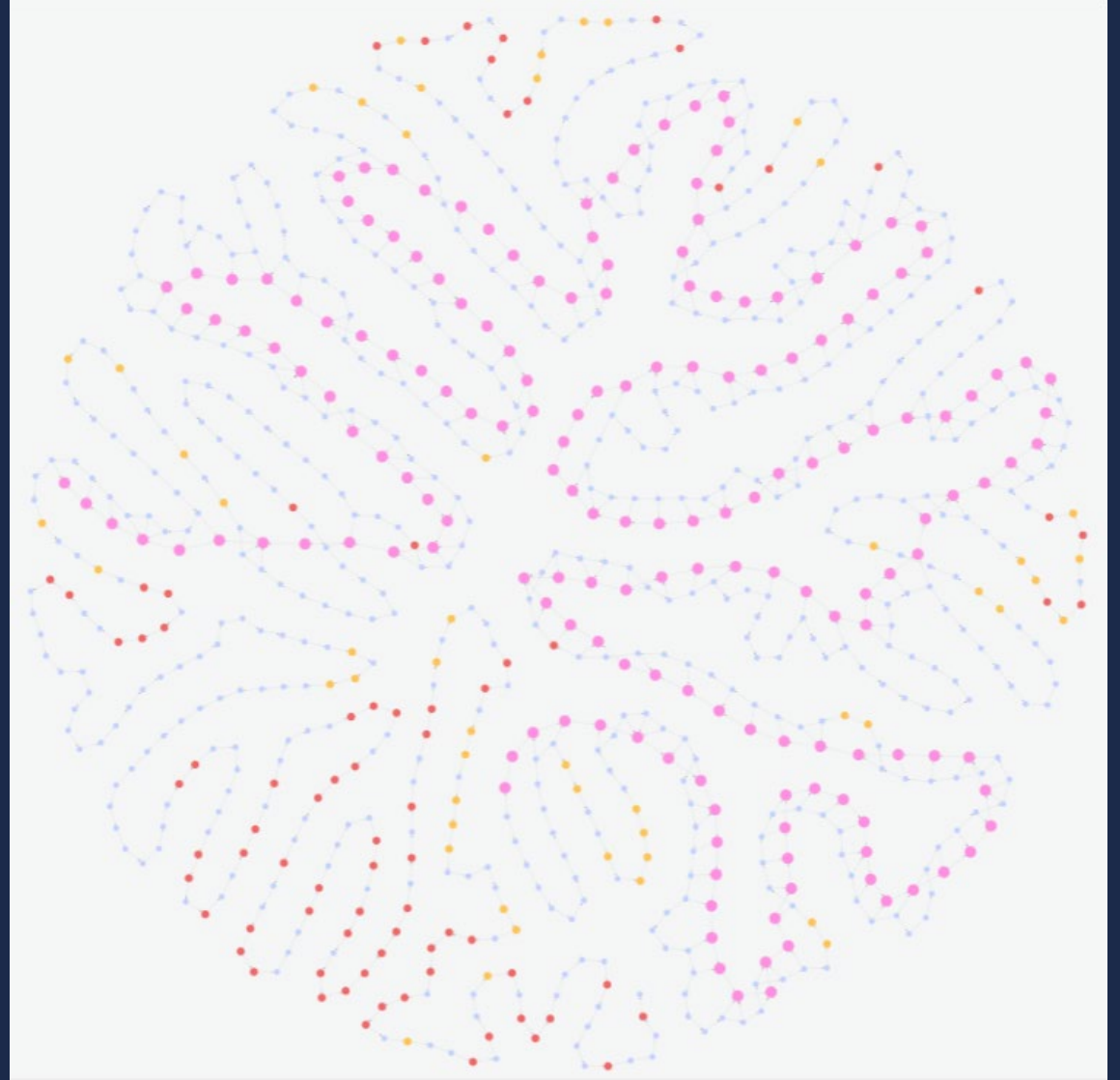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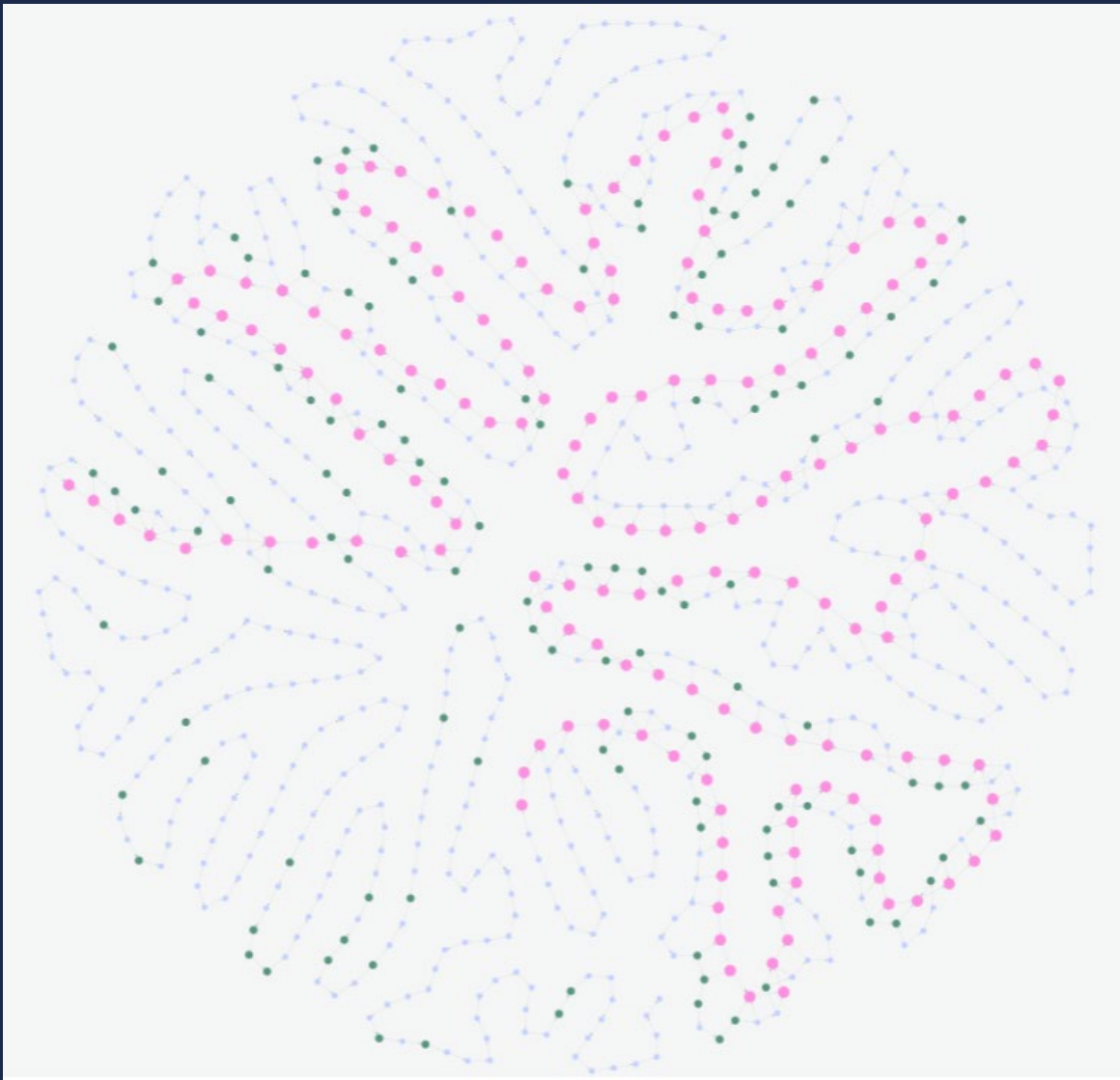
토픽1-사회주의, 토픽3-조선정치, 토픽4-경제·교육, 토픽5-동학농민전쟁, 토픽6-성리학, 토픽7-국제관계, 토픽8-개조론

36호 | 37호 — 도구가 찾아낸 경계

[그림 6] 《철학과 종교》(파랑노드)와 《개벽》(분홍노드) 간의 문장 대응 관계







과학(초록) → 번역에 포함 | 철학·권위(빨강·노랑) → 생략

수작업으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규모의 발견

도구 → 질문

결국 도구 먼저?

— 처음의 딜레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

자본 · 계급 · 마르크스 · 혁명



"사회주의"

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이다



도구가 먼저도, 질문이 먼저도 아닙니다

나의 질문 → 만남 ← 나의 도구

구조는 같되, 여러분의 만남은 다를 것입니다.

연구자의 역할이 바뀝니다.

읽고 해석하는 사람 → 조망하고 기획하는 사람

디지털 큐레이터

부대낌

지름길은 없지만 출발점은 있습니다

여러분 각자의 '디지털 문헌학'

허 수 · www.hs-kmhstory.com